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일 성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와 인민군대의 과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제256군부대관하 장병들앞에서 한 연설 1953년 10월 23일

동무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최고사령부를 대표하여 전쟁개시이래 전선에서 오래동안 영용하게 싸운 제 256 군부대관하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무들이 아다싶이 조선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적들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와 그 15 개 추종국가들의 방대한 무력을 때려부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대로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게 한것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3 년동안의 가혹한 전쟁에서 우리가 쟁취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가 자기의 영웅적투쟁으로써 적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공화국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영예롭게 지켜낸것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쏘련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공화국북반부에 민주기지를 창설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80 만의 당원을 가진 로동당과 수백만의 맹원을 가진 민청, 직맹, 농맹, 녀맹 등 사회단체들을 조직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산하에 각계각층 인민들을 널리 망라하였으며 인민대중을 당과 정부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웠습니다.

우리는 당을 튼튼히 꾸리고 당과 대중과의 통일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인민들을 동원하여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등 제반 민주개혁들을 실시하고 경제건설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며 북반부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온갖 조치를 취하여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해방후 첫날부터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습니다. 벌써 1946년부터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등을 통하여 인민군대의 간부들을 길러냈으며 1948년에 와서는 인민군대의 창건을 선포하고 그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습니다.

우리가 제때에 민주기지를 창설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하였기때문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 16개국의 무력침범자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습니다. 지난 전쟁시기에 만약 미제와 그 추종국가 군대가 아니라 리승만괴뢰군만을 상대하여 싸웠다면 우리는 벌써 그를 소멸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였을것입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와 그 추종국가들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민주기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난관과 시련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우리는 정치적각성이 높고 강철같이 단련된 수많은 당원들과 당주위에 굳게 뭉친 인민이 있고 튼튼한 민주기지가 있는 한 앞으로 어떠한 적들의 침공이라도 능히 물리칠수 있다

는것을 굳게 믿게 되였습니다.

둘째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조선전쟁에서 적들에게 군사적패배뿐만아니라 심대한 정치적패배를 주었습니다.

조선전쟁은 제국주의의 야수성을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였으며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여지없이 깨뜨려버렸습니다.

사실 이전에 일부 사람들은 미제의 《강대성》과 《인도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전쟁을 통하여 세계인민들은 미제가 가장 악독한 야만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았을뿐만아니라 인민들이 손에 무기를 잡고 끝까지 용감하게 싸운다면 그를 능히 격파할수 있다는것을 더욱 굳게 믿게 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침략자이며 제일 큰 도적놈이라는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왔습니다.

미국놈들은 조선에 와서도 오래동안 갑산, 홀동, 운산광산 등에서 수많은 금을 도적질해갔습니다. 그리고는 몇푼 안되는 돈으로 《자혜병원》이니, 《세브란스병원》이니 하는것들과 례배당, 학교 등을 지어놓고 마치도 《자선》을 베푸는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미국을 숭배하는 몇몇 앞잡이들을 자기 나라에 류학보내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려 하였으며 또 그들을 내세워 조선사람들이 미국을 숭배하도

록 설교하였습니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속임에 넘어가 미국놈을 숭배하였던것입니다.

미국놈들이 얼마나 악독한 야수들인가 하는것은 이전에 순안에서 한 어린애가 그들의 과수원곁을 지나다가 떨어진 사과를 주었다 하여 그 아이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긴 사실 하나만 보아도 넉넉히 알수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조선인민의 인심을 끌려고 교활한 술책들을 다하였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조선을 먹으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있었습니다. 놈들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할 때에는 그를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활한 놈들인가 하는것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제2전선형성문제와 조선해방문제를 놓고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해방에서 미제는 아무런 역할도 한것이 없습니다. 쏘련군대는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일제의 100만 관동군을 소탕하고 조선을 해방하였지만 미제는 아무러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 한방 쏘지 않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남조선인민의 《해방자》인듯이 뻔뻔스럽게 선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만수단이 결코 오래갈수 없었습니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더 숨길 여지없이 날날이 드러났으며 지난날 일부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들에

대한 환상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봅시다. 지난날 평양근처에 한 목사가 살고있었습니다. 그는 평화적건설시기에는 우리의 제도를 은근히 반대하면서 우리 당의 정책을 잘 집행하지 않았으나 전쟁시기 적들이 북반부를 일시 강점하였다가 쫓겨간 다음부터는 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당 간부가 그와 담화하였을 때 그는 말하기를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들이 망하고 미국사람들이 들어올것을 고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후퇴할 때 나는 <태극기>를 준비하고 심지어 온 가족에게 몸치장까지 시키고 미군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고보니 미국놈들은 내가 생각하여오던것과는 전혀 다른 놈들이였습니다. 미국놈들은 찌프차에서 내리자마자 카빙총으로 닭이건 무엇이건 닥치는대로 쏘고 략탈하였으며 녀성들을 희롱하며 릉욕하는 등 온갖 야수적인 만행을 다 감행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만이 인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준다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무들도 아다싶이 이 목사와 같은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영국의 한 레이버당원이 국제녀성련맹대표로 조선에 온일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에 올 때 미국이나 자기 나라 군대가 그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감행했을것인가에 대하여 의심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에 와서 직접 황해도의 안악, 신천 등지를 다니면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이 평화적도시와 농촌을 무차별폭격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악랄하게 학살한 참상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죄행을 폭로하였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세균무기까지 쓰고 갖은 만행을 다함으로써 자기들이 히틀러도당이나 일본제국주의자들보다 더 악독하다는것을 온 세계 인민들앞에 스스로 드러내놓았습니다.

미제국주의는 조선전쟁에서 자기의 야수성과 악랄성뿐만아니라 취약성도 여실히 드러내놓았습니다.

지난날 일부 사람들은 미국을 《황금의 나라》, 《과학의 나라》라고 불렀으며 미국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무들이 그들과 싸우면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바와 같이 천하에 제일 겁쟁이는 미국놈들입니다. 싸움할 때 미리 자동차를 돌려세워놓고 도망칠 준비부터 하는것이 미국놈들입니다.

미제는 《자그마한 조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업수이 여겼으나 그들은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고말았습니다.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되였으며 그 모범으로 되였습니다. 조선사람들처럼 용감하게 싸운다면 어떠한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도 능히 물리칠수 있으며 그들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다는것을 우리는 세계인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전쟁이 있은 이후 말라이, 인도네시아, 웰남 등 동남아세아 여러 나라들과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앙양되고 있으며 식민지체계는 걷잡을수 없이 허물어져가고있습니다.

이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그전과 같이 제 마음대로 남의 나라를 강점하고 그 나라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 당 및 정권기관, 사회단체와 그 일군들이 전쟁 3 년동안에 단련되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쟁취한 승리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하나입니다.

우리 인민과 우리의 당원 및 간부들은 전쟁의 불길속에서 강철같이 단련되였습니다. 만일 지난날의 조선인민을 단련되지 않은 《떡쇠》라고 한다면 오늘의 조선인민은 전기로에서 단련된 《특수강》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력사상에 조선전쟁처럼 가렬한 전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민군대는 리승만괴뢰군을 일거에 격파하였으며 미제침략군을 락동강계선까지 쳐내몰았습니다.

우리 군관들은 싸움을 통하여 현대화된 부대를 능히 지휘할수 있게 되였으며 공격, 후퇴 및 방어전을 잘 조직지휘할줄

아는 풍부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강대한 적을 상대하여 전쟁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워 군대를 능숙히 령도하며 전시환경에서도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전선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야간에 적기가 폭격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송사업을 능숙히 조직할줄 아는 아주 고귀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대공전투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야간에 전투를 할줄 모르며 불을 켜지 않고서는 차를 몰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에 팔려온 고용병이기때문에 우리가 이겨낸 시련, 그런 어려운 환경속에서는 단 하루도 전쟁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으며 돈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의지와 백전백승의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되였기때문에 어떠한 곤난이라도 이겨내고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실지 경험을 통하여 굳게 믿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조금만 위급하면 혼비백산하여 다시 수습할수 없는 혼란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리승만이 계속 떠들고있는 《북진》을 설사 감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1차반공격당시 우리의 땅크부대가 서울로 진격할 때 리승만은 방송에서까지 《공산군》의 땅크가 쳐들어오는데 막을수 없다고 비

명을 올렸습니다. 만약 앞으로 적들이 모험적인《북진》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맞받아칠것이며 우리의 비행기도 많이 동원될것입니다. 그때에 놈들은 역시 《공산군》비행기가 쳐들어오는데 당할수 없다고 비명을 올릴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대전을 도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그때에는 적들이 조선 한 지역에서가 아니라 세계의 많은 지역에 분산되여 싸워야 하므로 오히려 정세는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될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난 3년동안의 가렬한 전쟁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은 방공호도 더 잘 팔수 있고 소개사업도 더 잘할수 있으며 운전수들은 야간에 불을 끄고 얼마든지 달릴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쟁에서 단련되였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고귀한 경험은 우리 나라를 튼튼히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보배이며 큰 밑천으로 됩니다.

넷째로, 우리 인민의 투쟁목적의 정당성과 자기희생적인 투쟁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적지위와 위신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우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위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수많은 벗들을 전취하였으며 전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우리 나라 력사상 지금처럼 전세계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받아보았거나 우리의 국제적위신이 높아져본적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이번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쏘련과 구라파인민민주주의나라들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모두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상처를 하루빨리 회복할것을 념원하였으며 우리에게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에서 흘러나오는 사심없는 원조를 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조인을 큰 승리로 경축하였으나 리승만은 16 개 국가가 《자그마한 공산군》을 이기지 못하여 정전협정에 조인한것은 더없는 국가적수치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미국놈들도 정전협정에 조인하는것을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자그마한 조선》을 못이겨서 정전한다는것은 세계인민들과 특히는 자기의 예속국가인민들앞에서 미국의 무능력을 여지없이 드러내놓기때문입니다. 미제는 이러한 수치를 만회하기 위하여 정전담판을 2 년이상이나 끌어왔으며 자기를 《승리자》로 내세우려고 온갖 술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승리할 가망이 없게 되자 결국 정전협정에 조인하고말았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를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한 박사는 트루맨의 조선전쟁계획을 비판하

는 평론에서 트루맨의 오산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였습니다.

첫째로, 《종자》를 잘못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즉 조선사람은 이악하고 중국사람은 수가 많다는것을 타산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불리한 지형에서 맞다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조선에는 산악지대가 많기때문에 놈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던 기술을 마음대로 쓸수 없었습니다. 또 조선은 섬도 아니고 쏘련 및 중국과 직접 잇닿아있는 반도국가이기때문에 도저히 먹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때를 잘못 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중국혁명이 승리하였고 쏘련이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였고 특히 북조선이 해방후 5 년동안에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하여놓은 오늘에 와서 미국이 조선을 먹으려 한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박사인지는 모르나 나도 그가 옳게 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유사이래 침략전쟁에서 실패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서는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군을 격파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은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오늘의 우리 인민은 지난날의 조선사람이

아니며 자기 나라와 자기 주권을 찾은 각성된 새로운 조선인민이라는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리조 500년동안 썩어빠진 봉건지배계급들의 통치밑에서 각성하지 못하고 뒤떨어져있었던 그런 인민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 봉건통치배들은 일본이 명치유신후 빨리 발전하여나갈 때에도 그저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놈들이 5련발총을 가지고 침략해왔을 때 화승총으로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적을 물리칠수 있었겠습니까?

해방후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일제의 식민지노예로서, 나라없는 인민으로서 당하던 설음과 수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인민정권을 세웠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5년동안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였으며 강력한 민주기지를 창설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새 제도에서 살고있는 새형의 인민입니다.

둘째로, 조선인민은 맑스―레닌주의리론으로 튼튼히 무장된 자기의 지도적 및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싸워서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전쟁의 매 시기, 매 계단마다 정확한 전략

적방침을 내세우고 인민들을 승리에로 조직동원하였습니다.

조선로동당원들은 돌격할 때는 앞장서서 나갔으며 후퇴할 때는 뒤에서 적을 막았습니다. 공장과 농촌에서도 모든 어려운 일의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당원들이 서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만의 당원을 가지고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무장한 100만 당원, 이것은 아주 큰 힘입니다.

쏘련과 다른 나라 인민들이 조선인민군대를 세계에서 강한 군대라고 말하고있는데 우리 인민군대가 그처럼 강한것도 바로 그가 당의 령도를 받고있으며 군대내에서 우리 당원들이 선봉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국주의무력침공으로부터 공화국을 지켜낸 결정적담보였습니다. 적들도 우리의 이러한 강대한 힘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정전직전에 리승만이 단독《북진》을 고창하여나섰을 때 우리는 괴뢰군에게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였습니다. 그후 남반부 신문들에는 클라크와 리승만사이에 있은 요지 다음과 같은 담화내용이 발표되였습니다. 클라크는 리승만에게 단독《북진》을 부르짖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는데 왜 자기말을 듣지 않았는가고 추궁하면서 《나이 80객에 몇해라도 더 대통령을 해먹으려면 공연히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북진을 고창하니 이번에는 공산군이 방향을 바꾸어 국방군에게 공격을 집중하지 않았는가, 북한공산군

의 력량은 수십만에 달하며 거기에는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한 간부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리승만이 단독《북진》을 떠벌일 때 전선에 있다가 부산으로 돌아간 《국방군》병사들은 몇십명의 《대한청년단원》들이 단독《북진》을 웨치면서 행진하는것을 보고 군복을 벗어던지면서 《이것을 입고 너희들이 혼자서 북진을 하려면 마음껏 해보아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전선에서 싸우던 《국방군》들이 혼이 났고 그들자체가 《북진》이 불가능하다는것을 깨달았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셋째로, 우리가 승리한것은 우리에게 국제민주력량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때문입니다. 만일 전쟁에서 우리가 고립되여 투쟁하였다면 승리할수 없었을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승리할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오늘 우리앞에는 새로운 커다란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은 이미 쟁취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민주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민주기지는 우리 혁명의 원천지이며 근거지입니다.

민주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공업과 농업을 복구하여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닦으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앞으로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민은 평화적건설시기와 가렬한 전쟁과정에서 고귀한 경험을 쌓았으며 어떠한 난관이라도 용감히 뚫고 나아가는 투사로 단련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기술자와 민족간부들을 가지고있으며 계속 대량적으로 길러내고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전쟁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에 류학까지 보냈습니다.

전쟁에서 단련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훌륭한 지도간부들을 가지고있는 우리들이 정복하지 못할 요새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 은, 동, 철, 석탄, 전력, 목재, 물고기 등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는 먹을것, 입을것을 넉넉히 해결할수 있는 기름진 옥토와 풍부한 원료기지를 가지고있습니다. 문제는 이 풍부한 자원을 옳게 동원하며 리용하는데 있습니다.

셋째로, 평화적건설시기와 특히 전쟁시기에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준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나라 인민

들이 우리의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을 위한 투쟁을 지원하여 많은 원조를 줄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자체에게 달려있습니다. 전쟁에서 원쑤들을 용감히 무찌르던 기세로 긴장한 로력투쟁을 전개하며 기술수준과 지도수준을 높여 형제나라들의 원조와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과 내부원천을 옳게 리용한다면 우리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실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공업에서 세기적락후성과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닦게 될것입니다. 3 개년계획을 수행한 다음에 우리는 공업의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필요한 공장을 대규모적으로 신설하고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것이며 공업화의 기초를 쌓는 단계에 들어설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민경제는 뒤떨어진 기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여 발전할것이며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서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경제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면 경제 및 문화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처지에서 북조선과 남조선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그때에는 리승만도당의 처지가 매우 위급하여지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1948년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러 북조선에 들어왔던 김구나 김규식 같은 완고한 민족주의자들까지도 우리의 인민민주주의제도와 그때 아직 얼마 건설되지 않았던 북반부의 발전모습을 보고 《진정한 애국자는 당신들입니다. 우리는 미국사람을 위해서 더는 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물며 공화국북반부가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여가고 그 반면에 남반부경제는 파탄되여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비참해가면 남반부인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며 미제와 리승만도당을 반대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우리의 경제를 빨리 부흥발전시키고 민주기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후방을 공고히 하는것은 우리의 무력을 강화하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리승만도당은 첫날부터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는다고 웨쳤으나 《태극기》를 꽂지 못한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꽂지 못할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한나산에 공화국기를 꽂을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날로 장성강화되여가는 공화국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무력으로 굳건히 보위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침략자들이 감히 우리의 민주기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조국의 방선을 튼튼히 지키며 만일 적들이

또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침공해오는 적을 즉시 물리칠뿐만 아니라 추격하여 적들의 마지막소굴까지 소탕하고 우리 나라를 통일하는 위업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전기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자체의 력량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전시와 같은 긴장된 태세를 늦추지 말고 계속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동서해안과 경계연선에서 방어공사를 더욱 튼튼히 하며 언제나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군대를 량적으로는 적게 가지더라도 그를 맑스－레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현대적최신무기와 위력한 화력기재들로 훌륭히 장비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지형에 알맞고 기동성있는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로 우리 군대를 장비하며 포병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에게는 매우 옳지 못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쟁 제 3 계단 5 차작전까지만 하여도 김웅 같은자들은 엄중하게도 포를 후방에 두고 쓰지 않았으며 수류탄과 경무기만을 가지고 육박전으로 전투를 하려 하였습니다. 지휘관들은 포병리용에 대한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질적으로 강화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참모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문제입니다.

우리 참모부들의 사업에는 아직 많은 결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모부를 잘 리용하지 않고 과학적인 전투 조직과 지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모부들을 적정과 아군의 력량을 옳게 타산하고 과학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침착하고 정확하게 현대전을 조직할줄 아는 참모부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군군관들의 조직능력과 지휘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군관들은 현대적군대를 능숙하게 통솔지휘할줄 아는 령군술에 정통하도록 선진군사과학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비군을 가지고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관학교를 강화하며 모든 간부들과 군인들이 한등급 높은 직무를 담당수행할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례하면 우리의 소대장은 중대장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고 중대장은 대대장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인민군 모든 군인들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를 간부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인민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대관리를 더욱 개선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들의 구분대관리에서는 아직도

결함이 많습니다. 일부 지휘간부들이 부대관리에서 아직도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을 없애지 못하였기때문에 혁명군대인 우리 인민군대의 일부 부대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비상사고가 없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군관들에게는 물론 특무장, 부소대장들에게도 구분대관리에 대한 교육교양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언제나 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여있어야 합니다. 상부는 하부를 지극히 사랑하며 하부는 상부를 존경하는 도덕적품성이 수립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당성검토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내에서의 당성검토사업은 매 지휘관들이 당원으로서 부대관리와 하부교육교양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쟁 3 년동안의 총화사업을 정확히 하고 풍부한 경험과 교훈을 찾아내여 그것을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으며 정찰, 통신, 공병 부문의 사업들을 철저히 개선하고 포병리용과 부대관리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당성검토사업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에서 모든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